



무용원 심현희·양채은 등 이탈리아 시칠리아 국제무용콩쿠르 입상

- 심현희·양채은 시니어부문 공동 1위, 심현희 베스트 빠드되상 2관왕
- 주니어부문에 정가연·최예림 공동 1위, 나대한 2위 등 한국 발레 대세 확인
-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소속 이선우 학생부문 1위 등 발레 영재 4명 부문 석권



<왼쪽부터 심현희, 양채은, 정가연, 최예림, 나대한, 김현웅 (시니어 및 주니어부문 수상자)>



<왼쪽부터 이선우, 이고은, 이수빈, 전준혁 (학생부문 수상자)>

무용원 및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소속 학생들이 이탈리아 시칠리아국제무용콩쿠르에서 대거 입상해 차이코프스키콩쿠르 석권의 열기를 이어갔다.

지난 7월 5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모디카시에서 열린 제 6회 시칠리아 국제 무용 콩쿠르(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sicilia barocca 2011) 시니어부문(19~25세)에서 심현희(19세, 무용원 실기와 2년)씨와 양채은(19세, 무용원 실기와 2년)씨가 공동 1등을 차지했다. 특히 심 씨는 전 국립발레단원 김현웅(30세, 무용원 실기와 졸업)씨와 베스트 빠드되상을 수상하여 2관왕에 올랐으며, 관객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또 주니어부문(15~18세)에서는 정가연(18세, 무용원 실기와 1년)씨와 최예림(16세, 한국예술영재교육원)양이 공동 1등을 수상했으며, 나대한(18세, 무용원 실기와 1년)씨가 2등을 차지했다.

학생부문(11~14세)에서는 이선우(14세, 예원중 3년)군이 1등을 수상했으며, 이고은(12세, 선화중 1년)양과 이수빈(12세, 선화중 1년)양이 공동 2등을, 전준혁(13세, 선화중 1년)군이 3등을 각각 차지했다.

학생부문을 석권한 이들 4명은 모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소속이다.

이번 대회 심사는 쿠바를 비롯 유럽 국가에서 온 5명의 심사위원이 맡았으며, 세계 10여 개국에서 130명의 무용수들이 참가했다.

수상자들을 지도해 온 무용원 김선희 교수는 “한국 발레 무용수들의 출전은 올해 처음이라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려 있던 차에 한국 발레가 국제콩쿠르의 대세임을 확인시키는 결과를 보여줬다”며 “한국의 발레예술에 대한 많은 질문이 쏟아졌다”고 전했다.

제 무용콩쿠르 한국 발레에 매료됐다” <세계일보>



이탈리아 시칠리아 무용 콩쿠르서
시니어·주니어·학생 전 부문 1위

한국의 차세대 무용수들이 발레의 본 고장인 유럽의 국제무용콩쿠르를 석권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과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선화예술중학교, 예원중학교 소속 학생들이 첫 출전한 제6회 이탈리아 시칠리아국제무용콩쿠르(International Dance competition sicilia barocca 2011)에서 전 부문 1위와 참가자 10명(파트너 1인 포함) 전원 입상하는 기록을 세웠다.



심현희

양채은

정가연

한국예술종합학교에 따르면 5일부터 10일까지 이탈리아 시칠리아주 모디카시에서 열린 시칠리아 국제무용콩쿠르에서 시니어부문(19~25세)에서 심현희(19·무용원 실기과 2년)·양채은(19· ")양이 공동 1위를, 주니어부문(15~18세)에서는 정가연(18· " 실기과 1년)양과 내년 무용원 영재입학 예정인 최예림(16·한국예술영재교육원)양이 공동 1위를, 학생부문(11~14세)에서는 이선우(14·예원중

3년·한국예술영재교육원)군이 영예의 1위에 올랐다.

심현희양은 또한 파트너로 참가한 전 국립발레단원 김현웅(30·무용원 실기과 졸업)씨와 베스트 파드되상(2인무)을 수상하여 2관왕에 올랐다.



최예림

이선우

김현웅

나대한(18·무용원 실기과 1년)군은 주니어부문 2등을 차지했고, 이고은(12·선화중 1년·한국예술영재교육원)·이수빈(12·선화중 1년·)양과 전준혁(13·선화중 1년·)군은 각각 학생부문 공동 2, 3위를 차지했다. 학생부문 1~3위를 석권한 이선우·이고은·이수빈·전준혁 4명은 모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소속이다.

수상자들을 지도해 온 한국예술종합학교 무용원 김선희 교수는 “한국 발레 무용수들의 출전은 올해 처음이라 관계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한국 발레가 국제콩쿠르의 대세임을 확인시켜 주었다”며 “특히 심현희의 파트너로 참가한 김현웅에겐 애초에 없던 상(베스트 파드되상)을 만들어 시상할 정도로 한국 발레에 매료됐다”고 전했다.

조정진 기자 jjj@segye.com